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2월 7일 수요일 (음 12월 22일) 제19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싱싱한 가오리 한마리도 설 선물엔 제격이군요”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오후 부안 상설시장을 김중규 부안군수 및 전라북도상인연합회, 지역여성단체 등 100여명 등과 함께 직접 찾아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전통시장을 찾은 지역민들에게 “설 명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민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장보기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홍보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전통시장의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관련기사 2면)

“이재용 2심, 논리 모순”

박영수 특검팀 “판결 오류 대법원에 상고할 것”
민변 “국정농단에 완벽한 면죄부 준 판결” 비판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5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을 내놓고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
특검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면서도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전후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서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부정했다”며 논리가 서로 모순된다는 비판을 했다.
이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승계작업 존부나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적 청탁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는 등 특검이 원심 및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이 인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안종범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을 기재했다고 증언했음에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울러 핵심혐의 중 하나인 재산 국외도피 무죄와 관련해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국외도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준 의사로 해외로 재산을 보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논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신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상고의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에 완벽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이 모든 범죄에 무죄 선고를 한 거나 다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민 기자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대폭 강화

전북도, 제도 혁신 전라·제주권 권역별 토론회서

“수도권-비수도권 세수 불균형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위해”

행안부,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것” 밝혀

전북도는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전라·제주권 권역별 토론회’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불균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역 균형개발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 1일,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서 지역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라·제주권 권역별 토론회에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남, 제주, 광주권 4개 지자체 예산담당부서장과 재정관련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가 참여해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공동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2월 6일 전라·제주권을 시작으로 경상권, 수도권, 강원·충청

권 등 4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권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재원으로 교부되는 재원으로 2018년 보통교부세 전국 재원은 4조4,855억 원이며, 이 중 전북은 4조2,871억 원(10.1%)을 확보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올림픽 가치 평창이 보여줄 것” 4면 - 전주시 생태분야 시책 제시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 민주평화당 출범

비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6일 ‘민주평화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통합신당인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뉘면서 창당 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진행했다. <관련사진 3면>

전날까지 탈당계 제출을 마친 김광수·김경진·김종희·박지일·박준영·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동영·정인화·조배숙·전정배·최경환·황주홍 의원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익석 원내대표와 이춘석 사무총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민평당 초대 대표로 추대된 조배숙 의원은 “민주평화당 창당은 필연”이라며 “우리가 꿈꾸던 정당은 단결하는 정당,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이다. 우리는 민평당에서 똘똘 뭉쳐서 직책을 청산하고 촛불혁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평당은 창당선언을 통해 ▲최저임금·비정규직·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 ▲햇볕정책 계승·발전을 통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실현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 및 분권형 개헌 추진 등을 약속했다. /뉴시스

익산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익산시 2018년 올해의 사자성어 '비천도해'

飛天渡海

“지난해 성과 발판삼아 더 높이 도약하자”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의 '비천도해'는 2018년 전국체전을 비롯해 성장 동력 사업들로 지역 발전의 중대 번곡점을 맞이한 익산시가 이를 계기로 더 높이 비상하고 더 멀리 도약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담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왕궁리유적

구입처: 탑마루 쇼핑몰 www.topmaru.net(063-838-6079)